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통 메신저 SNS 시민 기자단 20명 위촉

정읍시 곳곳을 취재해 시정 소식을 전할 정읍시 SNS 시민 기자단이 지난 21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정읍시는 정읍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정읍시 SNS 시민기자단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이학수 정읍시장과 20명의 시민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SNS 트렌드 및 알고리즘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읍의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17명의 블로그 시민기자단과 3명의 유튜브 시민기자단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홍보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매월 홍보 주제를 정해 시민기자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10곳 추가 설치

정읍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등에서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늘막 10대를 추가설치한다.

시에 따르면 정우면사무소 앞, 신태인 문화의집 앞, 한국병원 사거리 등 5개소에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완료했다.

8월 내에는 초산동 당현마을 앞, 수성동 법원 앞, 내장동 부여마을 앞 등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늘막은 기온이 20℃ 이상, 바람세기가 초속7m 이하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또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15℃ 이하일 때, 일몰 후 어두워졌을 때는 자동으로 접힌다.

여름 한낮에는 좌우로 펴져 10명 이상의 시민이 동시에 햇빛을 피할 수 있다. 설치 면적도 크지 않아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촌인력난 해소'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입국… 지역 내 농가 배치돼 5개월간 인력 보탬될 예정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정읍시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체 입국했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20일, 21명의 캄보디아 국적의 계절근로자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단체 입국했다.

이번 입국은 지난해 시와 캄보디아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다.

이들은 이날 정읍으로 이동해 건강검사, 마약검사 등을 마쳤다. 이후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및 농가주·근로자 인권 교육 등을 받고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인력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담 도우미

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를 받거나 무단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 관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꾸준히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통상담실을 통한 교류로 안정으로 고용유지가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23년 상?하반기 312명(상반기 150명, 하반기 16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다.

현재는 1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친인척 96명이 7월 중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 대책 추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합동점검반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 바가지 요금 등 점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위한 물가안정관리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을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피서지에서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피서용품 등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축제 및 휴가철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유관 부서 및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바가지 요금,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7월 20일 격포항 일대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바가지 요금 근절 및 가격표시제 이행을 통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 이미지와 업주들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 축제가 열리는 만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직소천 잼보리 과정활동장 준공식

부안군은 지난 21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시 수상체험장으로 활용될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김정기·김슬지 전북도의원, 조경식 잼버리조직위원회 행사운영본부장, 박철희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김정희 한국수자원공사 부안권지사장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야영안전교육센터, 수상시설 및 탐방로 등으로 조성됐으며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수상활동과 더불어 트레킹,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직소천 야영안전교육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대지면적 1,579㎡, 연면적 355.26㎡ 규모로 수상체험교육장, 사무실, 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잼버리 수상시설 및 탐방로는 부유식 수영장 460㎡, 수변데크 246m(2개소) 및 탐방로 593m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직소천은 지난 2019년부터 210억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잼버리 수상활동과 연계해 수변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과 하천정비사업 수변공간을 통해 영지 내에서 무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직소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세계스카우트 참가자들 부안 명품쌀 먹는다"

'천년의 솜씨' 납품… 이외에도 토마토 · 어포 등 경제 활성화기대

부안군은 다가오는 8월에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부안군 명품쌀인 '천년의 솜씨'를 먹는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154개국 4만 3천여명의 참가자들은 영지 내에서 손수 밥을 지어 먹는데, 그때 '천년의 솜씨'가 사용된다.

부안군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와 식재료 납품업체인 '아워홈'과 협의를 거쳐 '천년의 솜씨'를 납품하게 됐으며, 이외에도 토마토, 얼음, 어포, 햄버거 등 납품을 통해 부안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미량요소와 유기물 함량이 많고 일조량이 풍부한 부안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천년의 솜씨를 세계인에게 선보여 부안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천년의 솜씨는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GAP 인증을 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쌀로, 쌀알이 크고 굵어 밥알이 부스러지지 않아 밥맛이 살아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아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하반기 완료

고창군은 아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작업이 올 하반기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아산농공단지는 설립된지 20년이 지나 노후 농공단지로 분류돼 있다. 그간 아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인근 주진천으로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보호구역인 갯벌과 서해의 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공단지 내에 인공습지 조성(V=926㎥)과 차집관로(L=887m) 정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때 인공습지가 저류지 역할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 농공단지 침수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파손되거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라북도로부터 기반시설 정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내 도로와 인도 전구간을 정비 완료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인공습지 조경공사 등을 완료해 생태환경과 수생태계 보전에 힘쓰겠다"며 "입주기업에 쾌적한 기업환경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민관합동 병해충 피해확인 적기방제 당부

고창군이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예찰에서 도열병 등의 피해를 확인해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고창군수도연구회 회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의 벼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해충 발생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예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최근 폭염과 장마의 날씨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피해가 조사됐다.

종자소독이 미흡한 일부 포장에서도 키다리병과 벼잎선충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멸구류도 육안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벼에 도열병 등 피해가 심하게 우려되어 고창군에서는 긴급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약제는 고창군 전면적을 대상으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방제 적기 이후에 약제살포시 이삭출기 경화로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연속적인 강우와 고온 등 기상조건의 변화로 벼에 병해충 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벼 출수기 전·후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 병해충의 적기 방제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